악함의 생산자와 유통업자

(잠언 21:1~31)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5.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악함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악함의 생산자와 유통업자'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월트디즈니와 넷플릭스의 대결이 경제계의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두 회사의 싸움이 관심거리인 이유는 두 회사의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월트디즈니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만화영화에서 시작해서 일반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합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주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1997년에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하였습니다. 할 일 없이 집에서 DVD를 빌려다 보고 있었는데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연체료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업을 구상하다가 나중에는 인터넷을 통한 streaming(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십자가복음 생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도 언제든지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서버로부터 내 컴퓨터로 영상이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 바로 스트리밍입니다. 설교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투브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저장된 내용이 컴퓨터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계 제일의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 콘텐츠 제작에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월트디즈

니가 제작한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유통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업의 영역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월트디즈니가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생산과 유통의 관계가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상이 변해서 생산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거나 유통업자가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바뀔 수 없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악함입니다. 죄악 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함은 인간의 내부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 안에서 생산된 악함을 원하는 대상에게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악함을 발생시키는 것은 인간이지만 악함의 유통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함이 생산되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악함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가운데 유통되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함이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함은 인간 안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대로 악함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악함이 표현되고 실현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함의 생산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악함을 생산하는 인간들은 결코 악함의 유통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타락 이후에도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해오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을 저수지의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마음에는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계획과 의도와 바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설령 왕이라도 멋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세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의 대표적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왕조차도 마음대로 표현하고 실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대결을 하였던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악함이 그의 마음에서 생산되고 있었지만 열 가지 재앙이 임할 정도로 강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포로귀환의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의 어전에 나섰을 때도 그렇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조차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악함이 생기든지 자유롭게 밖으로 표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조차도 자기 마음을 임의로 표현할 수가 없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정직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악함의 생산은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위는 마음의 소원이나 계획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잘잘못을 가릴 때 행위를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라나 사회가 정한 법이나 관행 혹은 풍습 같은 기준들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정당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스스로를 옳게 여긴 것도 이러한 기준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행위가 법이나 관행이나 풍습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독한 죄인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죄인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어떤 면을 감찰하신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악함과 선함을 감찰하시는데 그 내용을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악이냐 선이냐, 만약 악이라면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움의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말한 행위가 아닌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내용을 전제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3절

말씀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위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달래고 설득하기 위해 바치는 뇌물성 제사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행동을 실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행동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인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앞서 3절에서 보았던 제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에 불과한 제사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 상태를 죽이는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본래 마음의 악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악함을 유지한 채로 제사의 형식만을 따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사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크기로 지어진 인간의 마음 공백은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육체와 연관된 것을 접촉하면 마음은 세상을 빨아들임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자 죄악의 발생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타락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기쁨을 상징하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타락이기에 죄악은 기쁨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가 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대상으로 기뻐하려 할 때에 죄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악함은 바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열매로 맺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록 율법대로 행동하였지만 마음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번제의 생활화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일천 번제를 드

렸던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한 의인은 자신의 마음의 악함을 바라보며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또 그것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일천 번제를 통해 죽이는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의와 정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좋아하는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천 번을 죽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게 됨을 뜻합니다.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마음 채움으로 고백할 때에 공의와 정의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악함의 상태가 유지될 때에 나타나는 악인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밭을 가는 것이 죄니라'는 뜻입니다. 밭을 가는 것이 왜 죄입니까? 밭가는 것 자체는 선이나 악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밭을 가는 것조차도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악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잠언을 해석하기 위한 열쇠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단순한 생활화에서의 지혜를 언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혜는 의인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일 뿐입니다. 잠언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한 자'를 세상의 상식선에서 이해한다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을 사전적 의미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의미를 전제로 삼아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부지런한 자'는 곧 의인의 경영을 말합니다. 의인의 부지런함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일천 번제를 마친 솔로몬이 왕궁에 돌아가서는 번제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틈만 있으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가치를 통해 자동적으로 만족을 찾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번제의 어린양을 기억하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해야만 합니

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함으로써 상번제의 의미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일천 번씩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진행형이지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는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죽는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고 가게를 경영하면 어떨까요?
부지런히 죽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투자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달리말해 사업을 잘 함으로써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으니 사업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데도 떠오르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일이 잘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부지런함을 세상의 일이 아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에 투입합니다.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지만 의인은 승진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악임을 압니다. 악임을 알기에 승진으로 기뻐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죽여 나갑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일에 투자할 마음이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경계하는 조급한 자는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사업장에서 돈 벌어 기쁘겠다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생산되는 악함을 죽이는 것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모두 돈 버는 일에 투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에 손대는 일들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일천 번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하게 사는 의인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을 주지 않았던 일들이 풍성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은 채 세상일에 마음을 쏟아 붓는다면 삶은 궁핍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발생한 어떤 악함도 하나님의 유통시킴의 주관하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서 발생한 악함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형태로 유통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다가올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구박합니다. 물병을 던져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전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그렇게 행동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물병을 맞은 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사장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함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생산되는 악함을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악함의 생산 공정을 끝내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에서 유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